

발 대한양돈협회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 전

■ 일시: 2007. 3. 14 ■ 장소: aT



▲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임 김동환 회장은 “양돈업계의 대화합 통해 지속·번창하는 양돈산업 기틀 마련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 “대화합 통해 지속·번창하는 양돈산업 기틀 마련할 것”

## “3대 핵심 정책과제 실현 최우선 순위” ... “계획적 지원 이끌어낼 터” 대한양돈협회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3월 14일 서울시 양재동 소재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과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상수 과장, 엄성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및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등 정부기관 및 전 양돈관련 단체, 업계, 학계, 조합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대한양돈협회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동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 모든 양돈인들의 요구와 열망을 우선으로 삼고,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우리 양돈산업이 지속·번창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동환 회장은 특히 향후 3년의 임기동안 3대 핵심 정책과제 해결을 강조하며, 모든 양돈인의 협회 회원



▲ 새롭게 양돈협회를 이끌어갈 제16대 임원진들이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취임인사를 하고 있는 제16대 김동환 회장



▲ 최영열 전임 회장으로부터 협회 깃발을 전수받은 김동환 회장은 대통합의 가치를 내걸고 양돈산업의 도약을 다짐했다.

화 등을 통한 양돈업계 대화합과 더불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계획적인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 활성화와 함께 분뇨 처리 전문화로 양돈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모성질환 극복 등 양돈산업 현안 해결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이임사에 나선 최영열 회장은 “양돈협회장 재임기간동안 양돈산업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더없는 영광이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미력하나마 양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과오없이 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 김동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떡 자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부터 남호경 축단협회장, 엄성호 농단협회장,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16대회장, 최영열 15대회장, 최상백 13대회장,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김인식 천안축산발전협의회회장)

▶ 김동환 회장(좌측)이 최영열 제15대회장에게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최영열 전임 회장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재직기념패와 행운의 금돼지 기념품, 3년간 재직하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담은 책자와 앨범 등을 증정했다.



한편 국회 농해위 권오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 "다만 우리 농업계는 지금까지의 '무조건 안된다'는 대응에서 벗어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왔다"며 "수천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국내 축산업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회장은 이날 최영열 전임 회장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재직기념패와 행운의 금돼지 기념품, 3년간 재직하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담은 책자와 앨범 등을 증정했다. 또한 엄성호 농단협 회장과 남호경 축단협 회장,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경기도양돈연구회 김종필 회장, 양돈조합장협의회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 · 취임식에 이어 제16대 회장 및 임원진 기념사진 촬영과 축하떡 자르기 등 행사가 이어졌다. **양돈**